

반려견과 생활한 아이, 천식 위험 낮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 더 건강해지고 사회성도 좋아지며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연구로 밝혀졌다. 그런데 반려견을 기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천식의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뉴스위크 한국판(1228호)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스웨덴에서 태어난 1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애 첫해에 반려견이 있었던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15% 낮았다. 천식이 있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는 어린 시절 너무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 감염균이나 기생충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은 아이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오히려 알레르기나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위생 가설(hygiene hypothesis)'에 힘을 실어 준다.

스웨덴 웁살라대학 의학 부교수로 이번 연구의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토베 팔은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개와 함께 살았다."며 "인류 최초의 반려동물이 개였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사회 서비스와 의료 시스템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스웨덴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고유 식별번호를 받고, 전문의 진료와 처방약 등 모든 의료 기록이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또 스웨덴은 각 가정의 세세한 데이터도 보관한다. 과거엔 건강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던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스웨덴에선 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해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논문의 저자들은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의 천식 위험이 낮은 현상을 '농장 효과(farming effect)'에 견뎠다.

농장에서 자란 아이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 농장 효과다. 몇 년 전 농장 환경과 천식에 관한 연구 39건을 분석한 결과 소와 양 같은 농장 가축에 일찍 노출된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에 비해 천식에 걸릴 확률이 25% 낮았다.

팔 교수는 이번 연구가 가정에서 개를 기르면 아이의 장내 미생물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공기와 음식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장내의 고유한 박테리아 환경을 말한다. 팔 교수는 개에게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박테리아 중 천식과 관련된 특정 종이 있을지 모른다고 추정한다. 또 집에서 개를 기르면 아이는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더 자주 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 두 요인 모두 어린 시절 천식에 걸릴 위험을 낮춰준다.

다만 팔 교수는 반려견이 반드시 만성 호흡기 질환인 천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단언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치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더 많은 미생물에 노출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가정의 아이가 상대적으로 천식에 걸릴 위험이 낮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이가 주인을 핥는 이유



고양이가 자신의 몸을 핥는 것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고양이가 가끔씩 주인을 핥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 나는 너를 사랑해!

펫찌(petzi.com)에 따르면 고양이가 주인을 핥는 가장 큰 이유는 애정표현을 하기 위함이다. 핥는 것은 고양이가 애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핥아서 세수를 시키고, 소변을 유도하는 등의 행동도 애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2. 이해해줘!, 밥 줘!, 놀아줘!

고양이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도 주인을 핥는다. 놀이, 밥, 주인의 손길 등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고양이는 핥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고양이가 끈질기게 주인을 핥는다면 귀찮아하지 말고 고양이와 잠깐 놀아 주거나 사료를 줘서 요구를 충족시켜 주자.

3. 우리는 친구!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핥아주는 것은 '친구' 또는 '동료'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겐 있어서 '핥는' 행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며, 서열 관계를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

다. 반면, 주인을 핥아주는 것은 '너는 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친구!'라는 의미이다.

4 낮은 고양이의 냄새가 난다!

고양이는 주인에게서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주인을 핥는다. 고양이는 변화를 싫어하는 동물이다. 평소 맡던 냄새 외에 새로운 냄새가 나면 불안해한다. 주인에게서 낮은 냄새가 나는 경우, 그 냄새를 지우고 자신의 냄새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을 핥는 것이다.

한편 고양이가 핥아주면 까슬까슬

한 감촉이 느껴진다. 고양이의 혀를 확대해 보면 뾰족한 돌기가 300~400개 정도 돌아 있다. 이 돌기들은 고양이의 효과적인 그루밍을 돕고, 사냥감이 쉽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고양이는 개처럼 크고 단단한 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치아도 송곳니를 제외하고는 작은 편이다. 따라서 음식물에 흠집을 내 잘게 부셔 먹는 데 도움이 되도록 뾰족한 돌기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이의 거친 혀바닥은 사람에게 따가움을 주지만, 고양이의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mplant
~~\$1700~~ → \$999

X-Ray Exam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 \$350

잇몸치료
~~\$600~~ → \$300

틀니
~~\$1200~~ → \$850

KMC Dental Group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Irvine

L.A.

Hacienda Heights

Tel: (949)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Tel: (323)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Tel: (626)333-3000
16388 Colima Rd.
Hacienda Heights, CA 91745